

데스크 시각

열여섯 살 소녀 다해의 개인전



김미은 문화부장

담양군 금성면에 사는 열여섯 살 소녀 다해는 꿈이 많다. 가수가 되고 싶어 SM 오디션에 두 차례나 참여했다. 동화 작가도 되고 싶다. 지금은 하루 다섯 시간 넘게 그림을 그린다. 모두 집에서 기르는 검은 고양이 초코가 주인공이다. 다해의 작업실(?)은 집에서 버스도 5분 정도 떨어진 담양 남촌미술관이다. 다해는 미술관 1층 카페 창가, 그녀의 '고정석'에 앉아 이젤을 놓고 초코를 그린다.

기자를 만나면 떨려서 대답을 못할까 봐 친구들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다해는 다해는 시종일관 유쾌했다. 다해는 오는 13일부터 2월1일까지 남촌미술관에서 개인전 '초코야! 놀자'를 연다. 다해의 작품에는 황미로온 이야기가 담겼다. 이 미 굳어 버린 어른들의 머리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발상들이다. 희망 사항도 담았다. 초코에게 자신이 갖고 싶은 패딩을 입혀 주고 휴대전화도 쥐어 준다. 100

호짜리 대작에는 고양이 밴드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 가수가 되고 싶은 그녀의 꿈을 담았다.

고양이 주인공 100호 대작도

다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건 8개월여 전부터다. 올봄 남촌미술관을 개관한 이성태 작가에게서 무료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작가는 엔지니어로 삼성전자에서 30년간 근무했다. 화가가 꿈이었던 그에게 힘든 직장 생활을 견디게 해 준 건 '그림'이었고, 2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며 위로를 받았다. 퇴직 후 그토록 원했던 그림을 원 없이 그릴 수 있게 됐다. 카페에서 커피도 내리고 돈가스도 만든다. 그런 그가 다해의 꿈을 응원하며 개인전을 제안했다고 한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야음악회에 참석했다. 여느 때처럼 공연을 관람하던 부부는 이날 좀 특별한 경험을 했다. 피날레 무대인 헌멜의 '메시아' 공연에서 두 사람이 '할렐루야'를 부른 것이다. 물론 광주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과 함께였다. A씨 부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은 합창서 인근 객석에 앉아 있다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다. 12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노래했고 아이부터 부모까지 일가족이 참여한 경우도 많았

다. A씨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했다. 비록 노래를 부른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함께할 사람을 찾는다 해서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어요. 예전 성가대 활동하던 생각도 났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공연장에 왔던 지인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A씨는 이런 기회가 생기면 또 참여하고 싶으며 무엇보다 지인들이 많이 데려가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B씨는 만날 때마다 '퇴직 후 가장 즐거운 때가 색소폰을 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른 멤버들과 편안하게 만나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단다.

문화 예술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멋진 공연에 환호하고, 미술관을 찾아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 한 점에 위안을 받아도 좋다. 속스러운 생각에, 조금은 귀찮다는 생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감상하며 즐기는'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신이 예술 속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부대끼는 경험은 즐거움과 함께 지극히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얻게 해 준다. 다큐멘터리 '피나 바우쉬의 댄싱드림즈'를 봐도 알 수 있다. 춤을 배워 본 적이 없는 청소년 46명이 10개월 동안

세계적인 무용가 피나 바우쉬(1940~2009)와 춤을 추며 치유받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가는 과정은 감동적이다. 현대 무용가 안은미가 일반인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초상님께 바치는 댄스', '어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진행했던 '초생경극-무舞/無·言' 역시 시민들을 무대로 끌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줬던 작품들이다.

올해 나도 예술가가 돼 볼까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때다. 올해는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에 '직접'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배우가, 화가가, 음악가가, 무용수가 돼 보는 거다.

영화감독 프랑소와 트뤼포는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을 세 단계로 규정했다. 첫 번째는 영화를 두 번 보는 것, 두 번째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를 직접 찍는 것이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직접 예술 속으로 '퐁당' 빠져 보는 것도 근사한 경험일 듯하다.

마음만 먹는다면 기회는 많다. 올해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모두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는 내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보고



서미정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의 해이면서 황금개띠라고 합니다. 명리학의 갑자기년법에 따라 무술년인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로 나가는 10천간에서 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 무는 흙과 흙에서 나온 황금을 상징하며 노랑색 계열입니다. 또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가는 12지간 중 개를 의미하는 해이니 무술년은 황금의 개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천간 10개와 지간 12개가 돌아가니 60갑자가 되고 황금 돼지띠, 붉은 닭의 해, 황금 개띠 등도 6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니, 인간이 두 번씩 모든 년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황금'같은 휘황찬란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황금 개띠를 단순한 말장난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올 해는 최고의 해'라는 긍정의 기운을 담아서 한 해 한 해 모두 의미 깊게 살아가자는 선조의 깊은 뜻이라 이해합니다.

개는 이제 인간과 가족이라 믿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황금이 상징하는 경제적 넉넉함이 모여 만들어진 해이니만큼 모든 가정마다 화목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서 광주시의 예산도 황금 개띠의 영험이 통하길 기대합니다.

이에 짧은 지면으로나마 광주 시민들에게 예결위원장으로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 믿고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광주시 2018년도 예산은 지난해 12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의 의결과 광주시의 12월 18일 고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4741억 891만 3000원이 늘어난 4조 5138억 6256만 3000원으로 11.74%가 늘어났으며, 이는 국비 증액 5건 등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심의 결과로 최초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3억 9445만 원이 증감된 결과입니다.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0.5% 감소된 2017년도와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6~8.4%인 것을 비교해 분다면 2018년 도 11.74%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 중 재정 자립도와 연결되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1조 7767억 6932만 5000원으로 작년 1조 6387억 502만 6000원보다 4.01%인 1380억 6429만 9000원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예산의 증가율(11.74%)에 훨씬 밑돌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3253억에서 3145억으로 작년부터 적게 계상되는 세외 수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에서 보면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중 37.34%인 1조 6855억으로 작년 1조 4884억보다 13.24%가 늘었고, 그 다음 높은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13.22%), 수송 및 교통(9.62%), 환경보호(7.21%), 교육(7.14%) 순입니다.

예산 증감률에서 가장 많은 증액은 작년 대비 22.74%가 늘어난 문화 및 관광분야이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 분야가 331억 원인 것을 보면 세계수영선수

권대회 준비에 따른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증가를 보이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2.24%(305억 1138만 원) 증가인데, 이는 광주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목 중 증감률이 가장 높은 것은 도시철도 분야로 148.15%인 223억 원이 늘어나 지하철 2호선 건설 착공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농업 임업 분야가 410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비해 16%인 78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국비 감액과 그에 따른 시비 매칭도 줄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광주시가 더욱 복합도시인데도 산업 위주로 가면서 농촌과 농업을 또다른 소외 계층으로 만들고, 소홀히 하는 현상의 반영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더불어 시민 참여 예산에 대해 본래의 취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도 많았으니 광주시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집행하는가가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 또한 응원의 박수와 변화의 질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 고

시간과 시작, 그리고 그 의미



양홍 수필가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창조신의 영원한 시간이고, 또 하나는 피조물의 시간이다.

창조신의 시간은 무엇으로부터의 연유되지 않고 또한 무엇으로부터 지배받지도 않는 영원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자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창조신의 시간은 온전하고 영원하다.

그러나 피조물의 시간의 특징은 첫째 창조신께서 인간에게 제한해서 주신 단절된 것이다. 이것은 잘라진 시간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단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가 현재로 뒤바뀔 수도 없거니와 현재가 과거로 뒤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시간은 질서정연

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 흐름을 한번 뒤돌아보겠다는 시도가 바로 타임머신이다. 시간을 여행해보고 싶은 누군가에 의해서 상상하므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미래의 미지의 세계로 가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단절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이다.

피조물의 두 번째 시간의 특징은 변화하는 시간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과거는 현재에 밀려나고 현재는 미래로부터 밀려나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간은 항상 생성에서 소멸로 향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란 태어남의 시간이 있고 죽음이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단절된 시간, 변화하는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흐르는 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간에 주어진 시간은 변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나간 일생도 되돌아 봐야 하겠지만 우선 지난 일 년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지난 일 년을 뒤돌아 볼

때 창조신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창조신께서 그렇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만큼 충실하게 보내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 것도 많지만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현재를 그르치거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연말연시,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인가. 참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문화유산이 아닌가.

기독교인들의 경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창조주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을 입으라”했다. '새사람'으로 새롭게 살아 보려는 결단의 시기인 것이다.

2017년이 지나갔다.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난했던 해였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이다. 바울은 “알의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다.

참으로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보다 적절한 말은 또 없는

것 같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라, 긴 항해를 앞둔 배가 식수를 준비하려면 물통의 목은 물을 버려야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음력 석 달 그믐날이 가까워 오면 온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집안 어딘가를 시켜 그릇을 비롯하여 방과 마룻바닥을 닦아내도록 명령하신 조부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우리 모두 목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우리가 제일 먼저 잊어버려야 할 일은 지난날의 실패다. 실패했던 일을 마음에 두면 우선 얼굴이 어둡다. 힘이 나지 않는다. 용기는 더욱 나지 않는다. 결국은 모두를 잃어버린다. 유감스러운 일들,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모두 손을 잡자. 포옹을 하자. 멀리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보내어 화해하자. 큰 사랑으로 용서하자.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현재를 말하고 있다. 밤이 깊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나의 나뭇잎에 대한 인식을 바로해야 내가 살고, 가정의 살고,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살 것이다.

社說

유동성 위기 금호타이어 노사 고통 분담해야

누적된 적자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직원 급여 지급을 무기한 연기했다. 더욱이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가 정리 해고와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상경 투쟁에 나서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말 김충호 회장 명의로 '12월 급여와 4분기 제 수당 등 지급을 연기한다'는 사내 공고를 냈다. 지난해 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적자로 신규 차입이 필요한데 회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전체 월 급여액은 140억 원이던 운전 자금으로도 매월 4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 1000여 명이 지난달 29일 “경영 정상화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정리 해고나 임금 삭감이 아니라 중국 공

장 매각 및 국내 공장 증설, 재무 건전성 확보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회사 회생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중국 업체로 매각이 무산된 이후 채권단이 자율 협약에 들어가 실사를 벌이고 있다. 채권단은 심사 결과에 따라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사 측은 희망되다고 임금 동결 등 재무 개선을 통해 1483억 원을 마련한다는 자구안을 노조에 제시하고 노사 합의 동의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다.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는 노사 이해 당사자들이 고통을 얼마나 나누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채권단과 정부의 지원 또한 학구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만큼 노사 협의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네 명의 신생아 기 숨진 소식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새해 벽두부터 친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아이들이 숨졌다는 보도가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친부모의 아동 학대는 ‘가정사’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얼마 전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다섯 살 여아는 친부와 계모에 의해 압매장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는 아버지와 계모에게 폭행당했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채 버려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4세·2세·15개월 된 3남매가 화재로 숨졌다. 3남매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친모의 실수로 인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아동 학대 가해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친부라고 한다. 이처럼 친부모 아동 학대는 이제 드

문 일도 놀랄 일도 아니다. 학교나 어린 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의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방치책이 나왔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 학대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간혹 사고의 원인을 경제난이나 사회적 구조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놓고, 버리고 학대하고, 실패까지 서슴지 않는 부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범죄의 처벌이 가벼운 탓이 크다.

행정 당국은 예방점검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 모두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넘게 주는 지자체가 상당수라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낳은 아이의 온전한 육아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근본 대책에 가까울 것이다.

無 等 鼓

연초에 나오는 신년사를 들여다보면 해당 기관의 운영 방침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뒀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적폐 청산을 지속 하면서도 경제성장률 3%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각오다.

기업인들의 신년사 키워드는 상생과 혁신이다. 험난한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이어

위험을 가하는가 하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말로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핵무장으로 위협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김정은의 투트랙 전략은 어찌 보면 언더독(약자)의 생존 방식일지도 모른다.

어제는 전국 18개 기초단체장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정부와

언더독의 약진

국회를 압박했다. 10년째 한 해의 트렌드를 키워드로 제시해 온 서울대 김난희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은 고객과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자고 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시도를 내세웠다.

하고많은 신년사 가운데 올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는가 하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말로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핵무장으로 위협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김정은의 투트랙 전략은 어찌 보면 언더독(약자)의 생존 방식일지도 모른다.

어제는 전국 18개 기초단체장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10년째 한 해의 트렌드를 키워드로 제시해 온 서울대 김난희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은 고객과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자고 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시도를 내세웠다.

하고많은 신년사 가운데 올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미국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